

2021년 1분기 창원시 수출입동향 조사

2021. 4

I.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본 조사는 창원시의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고, 주요 수출품과 주요 교역국 등을 파악하여 수출입기업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물론 정책당국의 수출지원 및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2. 조사대상

- 2021년 1분기 창원지역 수출입 실적 전반

3. 조사방법

-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창원상의 내부자료 등 통계자료 분석

4. 조사기간

- 2021. 4. 19 ~ 21

5. 조사사항

- 수출입량 변화(전년 대비)
- 수출입 비중(전국, 경남)
- 무역수지 실적 등
- 주요 수출입 품목
- 주요 교역국 및 대륙별 수출입 동향
- 수출입 성질별 동향

II. 요약 및 시사점

- 2021년 1분기 창원 수출실적이 전년 동분기 대비 11.4% 증가한 41억 7,267만 불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지체되었던 수출이 생산과 물류 재개로 지난해 4분기 반등한 이후, 올해 1분기에도 호조세를 이어가는 모습임. ‘가정용 전자제품’과 ‘전자부품’, ‘산업기계’를 중심으로 대부분 산업에서 수출 증가를 보였음.
- 하지만,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지역기업의 채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창원의 대표적인 원자재성 수입품목인 철강금속제품의 경우 2019년 1분기 달러 당 689.99g을 수입하던 것에서 2021년 1분기 50.60g으로 26.6% 증가했음.
- 산업 전반에 걸친 전장화로 전자부품 수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창원의 전자부품 주요 수출국과의 산업내무역(GL지수) 지수가 높아지고 있음. 미국과의 전자부품 교역에 있어서는 분업과 경쟁을 활발히 하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음. 중국의 경우 지수상승이 꾸준히 이루어지며, 창원 전자부품 주요시장에서 경쟁국으로 변화했음. 최근 베트남 또한 산업내무역지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과거 중국과의 교역구조를 닮아가는 모습임.
- **창원시 2021년 1분기(2020년 1분기 대비) 주요 수출입 동향**
 - 수출 41억 7,267만 불 (11.4% ▲)
 - 수입 14억 1,708만 불 (5.2% ▲)
 - 무역수지 2억 7,559만 불 (14.9% ▲)
 - 총교역액 55억 8,975만 불 (9.8% ▲)
- **2021년 1분기 주요수출국**
 - **수출증가국** : 미국(+21.1%), 중국(+25.9%), 러시아(+86.4%), 브라질(+10.0%)
→ 완성품, 전장제품·가전제품 중심으로 증가
 - **수출감소국** : 베트남(-5.8%), 일본(-0.4%), 멕시코(-1.3%), 인도(-38.5%)
→ 중간재, 부분품 중심으로 감소

Ⅲ. 2021년 1분기 창원시 수출입

1. 수출입 동향

- 2021년 1분기 창원시 수출액은 전년 동분기 대비 11.4% 증가한 41억 7,267만 불, 수입은 5.2% 늘어난 14억 1,708만 불을 기록했다.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해 총교역액은 9.8% 증가한 55억 8,975만 불이며, 수입보다 수출 증가분이 커 무역수지 흑자액은 전년 대비 14.9% 증가한 27억 5,559만 불 실적을 올렸음.
- 같은 기간 경남 수출은 5.6%(107억 9,111만 불), 수입은 11.2%(52억 6605만 불) 증가했고, 전국 수출은 12.5%(1,464억 8,662만 불), 수입은 12.0%(1,361억 130만 불) 증가했음.
- 2021년 1분기 창원 수출액은 경남 전체 수출의 38.7%, 전국의 3.0%를 차지했고, 수입은 경남의 26.9%, 전국 1.0%를 점했음. 무역수지 흑자액은 경남의 49.9%, 전국 26.5%를 차지해, 경남과 전국의 무역수지 흑자를 견인했음.

2021년 1분기 창원 수출입 실적

(단위 : 천불, %)

구분	창원			전국	[창원비중]
	창원	경남	[창원비중]		
수출	4,172,670 (11.4)	10,791,112 (5.6)	38.7	146,486,619 (12.5)	3.0
수입	1,417,079 (5.2)	5,266,047 (11.2)	26.9	136,101,298 (12.0)	1.0
무역수지	2,755,591 (14.9)	5,525,065 (0.8)	49.9	10,385,321 (19.6)	26.5
총교역액	5,589,749 (9.8)	16,057,159 (7.4)	34.8	282,587,917 (12.3)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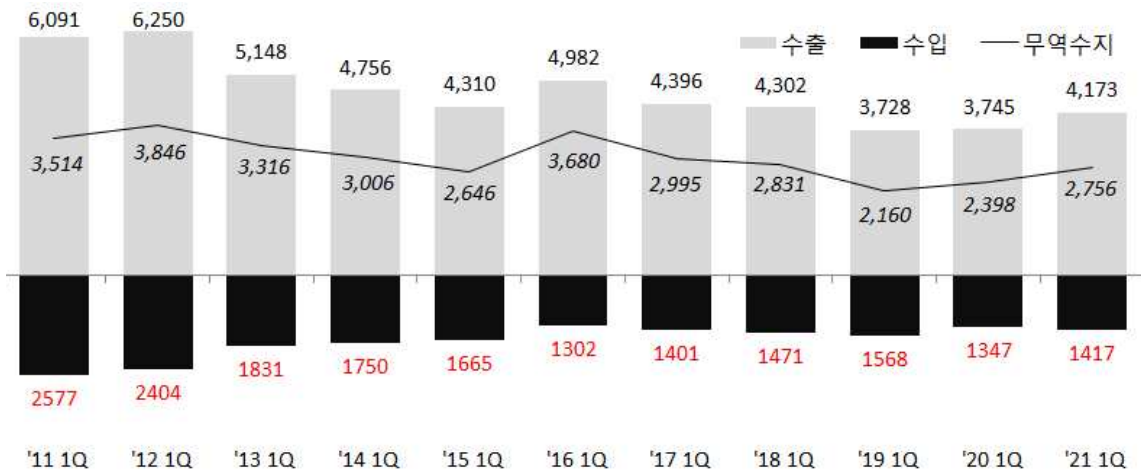
<자료 : KITA 통계 가공>

* ()는 2021년 1분기 대비 증감

-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보호무역기조 확대 등의 영향으로 30억 불대를 보였던 1분기 창원 수출실적이 3년 만에 40억 불대를 기록했음. 더욱이 수출과 수입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으로 향후 수출도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함.

창원시 수출입, 무역수지 동향

(단위 : 백만불)



(단위 : 천불, %)

	수출 (증감율)	수입 (증감율)	무역수지	총교역액 (증감율)
'11 1Q	6,091,326 (16.9)	2,577,328 (19.2)	3,513,997	8,668,654 (17.6)
'12 1Q	6,250,242 (2.6)	2,404,225 (-6.7)	3,846,016	8,654,467 (-0.2)
'13 1Q	5,147,875 (-17.6)	1,831,471 (-23.8)	3,316,404	6,979,346 (-19.4)
'14 1Q	4,756,485 (-7.6)	1,750,039 (-4.5)	3,006,446	6,506,524 (-6.8)
'15 1Q	4,310,393 (-9.4)	1,664,614 (-4.9)	2,645,779	5,975,007 (-8.2)
'16 1Q	4,981,668 (15.6)	1,301,661 (-21.8)	3,680,007	6,283,329 (5.2)
'17 1Q	4,395,666 (-11.8)	1,400,911 (7.6)	2,994,755	5,796,577 (-7.8)
'18 1Q	4,302,331 (-2.1)	1,471,263 (5.0)	2,831,068	5,773,594 (-0.4)
'19 1Q	3,728,216 (-13.3)	1,568,351 (6.6)	2,159,865	5,296,567 (-8.3)
'20 1Q	3,745,059 (0.5)	1,346,782 (-14.1)	2,398,277	5,091,841 (-3.9)
'21 1Q	4,172,670 (11.4)	1,417,079 (5.2)	2,755,591	5,589,749 (9.8)

<자료 : KITA 통계 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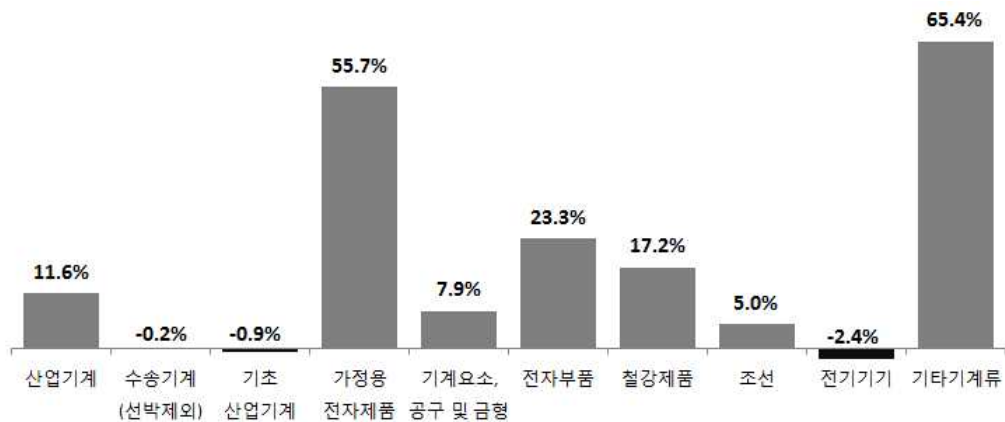
※ ()는 전년 대비 증감률임.

2. 산업 및 품목별 수출실적

- 창원시 산업별 전년 대비 수출액 증감을 보면 ‘기타기계류’(+65.4%), ‘가정용 전자제품’(+55.7%), ‘전자부품’(+23.3%), ‘철강제품’(+17.2%), ‘산업기계’(+11.6%), ‘조선’(+5.0%)는 수출이 증가했지만, ‘전기기기’(-2.4%), ‘기초 산업기계’(-0.9%), ‘수송기계(조선제외)’(-0.2%) 감소했음.
- 창원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기계’와 ‘가정용 전자제품’ 수출이 회복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음. 이러한 추세는 지난해 4분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체되었던 생산과 물류가 재개된데 따라 수출실적이 빠른 회복세를 보였고, 올해 1분기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됨.

2021년 1분기 창원시 주요 산업별 수출 증감(전년 대비)

(단위 : %)



<자료 : KITA 통계 가공>

3. 품목별 수출입

1) 주요 수출품목(MTI¹⁾ 4단위 기준)

- 2021년 1분기 창원시 주요 수출품(MTI 4단위 기준)은 ‘자동차부품’(4억 9,694만 불), ‘건설중장비’(3억 1,781만 불), ‘냉장고’(2억 7,861만 불), ‘금속절삭가공기계’(2억 1,458만 불), ‘원동기’(2억 1,103만 불), ‘펌프’(2억 49만 불) 등임.

1) 무역동향분석에 사용되는 품목분류 코드로 비슷한 종류의 HS코드를 묶어 코드와 품목명을 부여한 체계

2021년 1분기 창원시 주요 수출품

(단위 : 천불)

순번	품 목 (MTI 4단위)	2019	2020	증감	주요 수출 대상국
1	자동차부품	477,716	496,954	4.0%	미국, 브라질, 중국, 우즈베키스탄, 멕시코, 베트남 등
2	건설중장비	307,568	317,807	3.3%	벨기에, 미국, 중국, 러시아, 브라질, 터키, 인도 등
3	냉장고	178,334	278,610	56.2%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 등
4	금속절삭가공기계	169,154	214,577	26.9%	미국, 중국, 독일, 이탈리아, 터키, 인도 등
5	원동기	187,651	211,033	12.5%	중국, 미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일본 등
6	펌프	204,937	200,491	-2.2%	미국, 중국,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등
7	공기조절기	156,222	171,830	10.0%	네덜란드, 미국, 태국, 중국, UEA 등
8	섬유기계	144,919	167,831	15.8%	미국, 캐나다, 중국 등
9	세탁기	85,707	152,473	77.9%	미국,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10	철도차량	64,241	140,357	118.5%	튀니지, 호주, 이집트, 홍콩 등
11	선박	68,166	105,821	55.2%	마셜제도
12	승용차	122,735	84,307	-31.3%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13	베어링	77,141	83,540	8.3%	독일, 중국, 일본, 미국 등
14	기타기계류	47,795	78,850	65.0%	홍콩, 중국 등
15	집적회로, 반도체부품	58,253	75,630	29.8%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 등
16	접시세척기	52,913	69,043	30.5%	미국, UAE, 캐나다 등
17	화학기계	43,635	64,319	47.4%	러시아, 중국, 미국 등
18	변압기	49,744	55,191	11.0%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19	기타기계요소	37,025	49,153	32.8%	중국,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 멕시코 등
20	축전지	38,809	47,947	23.5%	미국, 폴란드, 독일, 영국 등

<자료 : KITA 통계 가공>

※ 밑줄이 있는 국가는 품목당 전체 수출액의 1/3이상인 국가

- 전년 대비 수출액이 증가한 품목은 ‘철도차량’(+118.5%), ‘세탁기’(77.9%), ‘기타기계류(반도체 및 부품 제조장비)’(+65.0%), ‘냉장고’(+56.2%), ‘선박’(+55.2%), ‘화학기계(증류·가열기)’(+47.4%), ‘기타기계요소’(+32.8%), ‘접시세척기’(+30.5%), ‘집적회로·반도체 부품’(+29.8%)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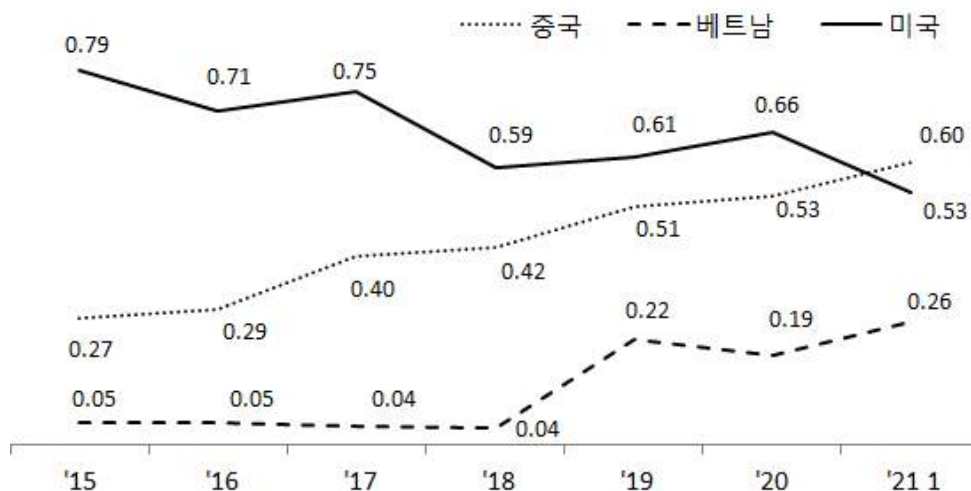
반대로 전년 대비 감소를 보인 수출품목은 ‘항공기부품’(-56.6%), ‘선박용 엔진 및 부품’(-40.5%), ‘승용차’(-31.3%), ‘가열난방기’(-28.5%), ‘전동축 및 기어’(-22.2%) 등임.

- 창원의 주요 수출품 대부분이 전년 대비 증가를 보인 가운데,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접시세척기 등 가전제품과 인쇄회로 부품, 축전지 등 전자부품의 수출 증가가 눈에 띈다. 가전제품의 경우 북미시장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출을 이어가고 있는 품목이나, 전자부품의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품목임.

- 산업 전반에 걸친 전장화로 전자부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전자부품 업종의 지역 내 근로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창원의 전자제품 주요 수출국과의 산업내무역지수(GL지수)²⁾ 추이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산업간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점진적으로 지수 하락을 보이고 있음. 특히 2020년부터는 전자부품의 적자구조에서 흑자로 전환했음. 높은 지수의 의미는 산업내 높은 수준의 분업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경쟁강도도 높음을 의미함.

창원 전자부품의 주요국 간 산업내무역지수(GL지수) 추이



- 중국의 경우 산업내무역지수가 2015년 '0.27'에서 꾸준히 상승해 올해 1 분기에는 '0.60'으로 높은 수준의 산업내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중국이 창원 전자부품의 수출시장에서 경쟁자이자 협력자로 성장했음을 의미함.

주목할 점은 베트남과의 전자부품 수출입 구조임. 2015년 '0.05'로 일방적인 수출시장에서 2019년부터 산업내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과거 중국과의 교역구조와 닮아 있음.

2) 주요 수입품목(MTI 4단위 기준)

- 창원 주요 수입품은 '원동기'(1억 1,056만 불), '항공기부품'(8,072만 불), '펌프'(7,467만 불), '자동화기기'(5,607만 불), '자동차부품'(5,570만 불), '베어링'(4,946만 불), '베어링'(4,946만 불) 등임.
- 전년 대비 수입액이 증가한 품목은 '분석시험기'+(327.4%), '금속절삭가공기계'+(83.2%), '공기조절기'+(75.4%), '항공기부품'+(65.7%), '전동기'+(60.9%), '철도차량 부품'+(60.5%), '철강판'+(55.2%) 등임.
반대로 수입액 감소를 보인 품목은 '열연강판'(-73.7%), '냉연강판'(-68.7%), '알루미늄 조가공품'(-54.6%), '고철'(-49.5%), '선박용 엔진 및 부품'(-29.4%), '접속기 및 차단기'(-26.5%), '기타기계요소'(-8.6%) 등임.
- 개별 수입품목의 국가별 비중을 보면, '자동화기기', '베어링', '분석시험기', '기타기계류', '철강판', '밸브' 수입은 해당 품목의 전체 수입의 1/3 이상을 일본으로부터 하고 있어, 對일본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항공기부품', '알루미늄과 스크랩', '계측기' 수입은 1/3 이상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기타기계요소', '철도차량부품', '공기조절기', '금속공작기계부품'은 對중국 의존도가 높았음. 이 밖에 '선박용 부품'은 노르웨이, '전동기'는 베트남으로부터 해당품목 전체 수입의 1/3 이상을 수입했음.

2) GL(Grubel-Lloyd)지수 : $1 - \frac{|X_j - M_j|}{X_j + M_j}$ X = 수출실적, M = 수입실적, j = 해당품목

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산업내 동종 제품 간의 수출입거래가 활발함을 의미하고, 0에 가까울수록 일방적인 수출 또는 수입을 의미함

2021년 1분기 창원시 주요 수입품

(단위 : 천불)

순번	품 목 (MTI 4단위)	2019	2020	증감	주요 수입 대상국
1	원동기	105,852	110,558	4.4%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
2	항공기부품	48,706	80,717	65.7%	미국, 영국 등
3	펌프	75,441	74,666	-1.0%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등
4	자동화기기	47,049	56,072	19.2%	일본, 미국 등
5	자동차부품	38,166	55,697	45.9%	독일, 중국, 일본, 베트남 등
6	베어링	46,805	49,456	5.7%	일본, 독일, 중국, 미국 등
7	전동축 및 기어	37,655	40,425	7.4%	중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8	기타기계요소	36,383	33,239	-8.6%	중국, 일본, 미국, 인도네시아 등
9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25,819	33,032	27.9%	미국, 호주, 대만, UAE 등
10	선박용 부품	33,563	32,222	-4.0%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11	철도차량부품	17,359	27,862	60.5%	중국, 독일, 체코, 일본 등
12	분석시험기	6,155	26,307	327.4%	일본, 중국, 미국 등
13	계측기	21,106	25,276	19.8%	미국, 독일, 영국, 중국 등
14	기타기계류	22,963	24,288	5.8%	일본, 영국, 독일, 스위스 등
15	금속절삭가공기계	12,679	23,222	83.2%	일본,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16	철강관	13,981	21,699	55.2%	일본, 중국, 이탈리아 등
17	공기조절기	12,320	21,613	75.4%	중국, 일본, 체코 등
18	밸브	18,841	21,542	14.3%	일본, 미국, 중국, 노르웨이, 독일 등
19	전동기	13,353	21,482	60.9%	베트남, 일본, 중국, 미국, 오스트리아 등
20	금속공작기계부품	17,915	20,400	13.9%	중국, 대만, 인도, 독일 등

<자료 : KITA 통계 가공>

※ 밑줄이 있는 국가는 품목당 전체 수입액의 1/3 이상인 국가

4. 가공단계별 수출입

- 2021년 1분기 가공단계별 수출실적을 보면, 중간재³⁾ 수출이 18억 2,177만 불로 전체 수출의 43.7%를 차지했음. 자본재⁴⁾ 수출은 16억 7,495만 불로 전체 40.1%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22.6% 늘었음.
- 2021년 1분기 가공단계별 수입실적을 보면, 중간재 수입이 9억 5,657만 불로 전체 수입의 67.7%를 차지했음. 이는 전년 대비 0.3% 증가한 실적임. 자본재 수입은 3억 4,421만 불로 전체 24.3%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18.9% 증가했음.
- 산업트렌드 적응과 미래 대비 투자에 활용되는 자본재와 기존 아이템이 생산에 활용되는 중간재의 수출입이 모두 증가해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산업활동의 위축이 빠르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21년 1분기 창원시 가공단계별 수출입

(단위 : 천불)

	수출			수입		
	'20 1Q	'21 1Q	증감률	'20 1Q	'21 1Q	증감률
1차산품	2,808 (0.1%)	3,654 (0.1%)	30.1%	44,316 (3.3%)	46,131 (3.3%)	4.1%
소비재	515,220 (13.8%)	646,343 (15.5%)	25.4%	42,096 (3.1%)	50,526 (3.6%)	20.0%
자본재	1,366,732 (36.5%)	1,674,953 (40.1%)	22.6%	289,441 (21.5%)	344,207 (24.3%)	18.9%
중간재	1,820,878 (48.6%)	1,821,774 (43.7%)	0.0%	956,565 (71.0%)	959,794 (67.7%)	0.3%
기타	39,422 (1.1%)	25,945 (0.6%)	-34.2%	14,364 (1.1%)	16,421 (1.2%)	14.3%
총계	3,745,059	4,172,670	11.4%	1,346,782	1,417,079	5.2%

※ ()는 창원시 총 수출입 중 비중
<자료 : KITA>

3)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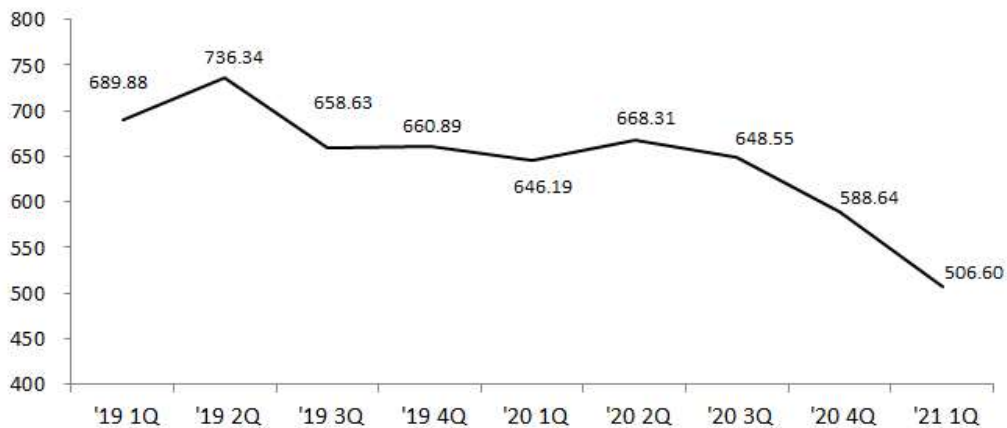
4)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

- 가공단계별로 대부분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하는 가운데, 원자재성 제품의 수입가격 상승으로 기업 채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창원의 원자재성 품목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철강금속제품(1분기 창원 전체 수입의 13.9% 차지)의 가격 추이를 보면, 2019년 1분기 달러 당 689.88g을 수입했던 것에서 2021년 1분기 달러당 506.60g으로 가격이 26.6% 증가했음. 이러한 철강금속제품 가격의 상승은 수출회복이 시작되었던 2020년 4분기 이후 이어지고 있음.

창원 수입 철강금속제품 가격 추이

(단위 : 그램/달러)



5. 국가(지역)별 수출입

- 2021년 1분기 창원시 주요 교역국은 미국(총교역액 14억 53,44만 불), 중국(9억 422만 불), 일본(4억 4,788만 불), 베트남(2억 4,848만 불), 독일(2억 3,196불), 멕시코(1억 6,130만 불) 등임.
- 미국은 창원의 최대 수출국이자 무역수지 흑자국임. 미국으로 12억 672만 불(+21.1%) 수출해 창원 총 수출의 28.9%를, 2억 4,672만 불(+17.4%) 수입해 창원 총 수입의 17.4%를 차지했음. 무역수지 흑자액은 9억 6,000만 불을 기록했음.
창원의 對미 수출은 ‘냉장고’, ‘세탁기’, ‘승용차’, ‘접시세척기’ 등 가전제품과 ‘펌프’, ‘변압기’, ‘축전지’, 수입은 ‘항공기부품’과 ‘알루미늄’, ‘계측기’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

2021년 1분기 창원 주요 교역국(지역) 비중

(단위 : 천불, %)

국가	수출액 (증감)	수입액 (증감)	무역수지	총교역액 (증감)
미국	1,206,722 (21.1) [28.9]	246,718 (-3.5) [17.4]	960,004 [34.8]	1,453,440 (16.1) [26.0]
중국	624,384 (25.9) [15.0]	279,834 (14.5) [19.7]	344,550 [12.5]	904,218 (22.1) [16.2]
일본	156,049 (-0.4) [3.7]	291,831 (24.5) [20.6]	-135,782 [-4.9]	447,880 (14.5) [8.0]
베트남	191,307 (-5.8) [4.6]	57,173 (2.6) [4.0]	134,133 [4.9]	248,480 (-4.0) [4.4]
독일	95,011 (-0.4) [2.3]	136,951 (2.8) [9.7]	-41,940 [-1.5]	231,962 (1.5) [4.1]
멕시코	150,271 (-1.3) [3.6]	11,027 (-19.1) [0.8]	139,244 [5.1]	161,298 (-2.8) [2.9]
브라질	102,324 (10.0) [2.5]	9,759 (43.6) [0.7]	92,565 [3.4]	112,083 (12.3) [2.0]
러시아	103,819 (86.4) [2.5]	4,487 (-48.4) [0.3]	99,332 [3.6]	108,306 (68.1) [1.9]
태국	89,152 (57.4) [2.1]	9,121 (-13.3) [0.6]	80,031 [2.9]	98,273 (46.3) [1.8]
인도	86,387 (-38.5) [2.1]	10,718 (-25.6) [0.8]	75,669 [2.7]	97,105 (-37.3) [1.7]
캐나다	86,535 (-6.1) [2.1]	7,306 (-20.6) [0.5]	79,229 [2.9]	93,841 (-7.4) [1.7]
호주	87,019 (182.7) [2.1]	6,406 (14.2) [0.5]	80,613 [2.9]	93,425 (156.7) [1.7]
홍콩	87,364 (34.2) [2.1]	3,869 (20.5) [0.3]	83,494 [3.0]	91,233 (33.5) [1.6]
대만	61,770 (19.1) [1.5]	27,011 (16.0) [1.9]	34,759 [1.3]	88,781 (18.1) [1.6]
폴란드	71,638 (31.5) [1.7]	11,096 (3.2) [0.8]	60,542 [2.2]	82,734 (26.8) [1.5]
벨기에	80,355 (-5.6) [1.9]	1,608 (-87.2) [0.1]	78,747 [2.9]	81,963 (-16.1) [1.5]
이탈리아	40,174 (50.7) [1.0]	38,665 (68.6) [2.7]	1,508 [0.1]	78,839 (59.0) [1.4]
네덜란드	73,321 (17.6) [1.8]	5,272 (35.6) [0.4]	68,049 [2.5]	78,593 (18.6) [1.4]
우즈베키스탄	78,206 (-31.3) [1.9]	1 (0.0) [0.0]	78,205 [2.8]	78,207 (-31.3) [1.4]
영국	31,031 (-42.6) [0.7]	28,681 (1.4) [2.0]	2,350 [0.1]	59,712 (-27.5) [1.1]
	4,172,670 11.4	1,417,079 5.2	2,755,590	5,589,749 9.8

※ ()는 전년 대비 증감율이며, []는 창원시 총 수출입, 무역수지 중 비중
<자료 : KITA 통계 가공>

- 미국에 이어 교역 비중이 높은 중국으로 6억 2,438만 불 수출했고, 2억 7,983만 불 수입해 3억 4,455만 불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음.
창원의 對중 수출은 ‘원동기’, ‘펌프’, ‘반도체부품’, 수입은 ‘자동차부품’, ‘기타기계요소’, ‘철도차량부품’ 등 자본재가 주를 이룸.
- 일본은 창원산업에 전통적으로 소재·부품·장비를 공급해온 국가임. 중국과의 분업체계 확대로 비중은 낮아졌으나 여전히 창원 최대 수입국임. 1분기 창원은 일본으로 1억 5,605만 불 수출했고, 2억 9,183만 불 수입해 1억 3,578만 적자를 기록했음.
창원의 對일 수출은 ‘베어링’, ‘자동차부품’, ‘원동기’, 수입은 ‘자동화기기’, ‘베어링’, ‘분석시험기’, ‘원동기’, ‘펌프’ 등이 주를 이룸.
- 1분기 창원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창원의 최대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20%대의 증가를 보였기 때문임. 이 밖에도 러시아(+86.4%) 수출이 ‘화학기계’,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고, 태국(+57.4%)으로 ‘공기조절기’, ‘운반하역기계’, 호주(+182.7%)로 ‘냉장고’, ‘접시세척기’ 수출이 크게 늘었음.

5. 지역별 수출입

- 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 2021년 1분기 지역별 무역수지는 창원시가 41억 7,267만 불 흑자를 기록해 충남 아산시(146억 267만 불), 경북 구미시(52억 2,248만 불), 충북 청주시(48억 7,718만 불), 경남 거제시(35억 1,650만 불), 경기 용인시(28억 323만 불)에 이어 6번째를 기록했음.
- 수출은 서울특별시(163억 1,780만 불), 충남 아산시(153억 8,838만 불), 인천광역시(100억 5,875만 불) 등에 이어 10번째를 기록했고, 수입은 서울특별시(424억 8,899만 불), 인천광역시(110억 6,776만 불), 경기 수원시(108억 3,528만 불) 등에 이어 17번째에 이름을 올렸음.

2021년 1분기 전국 지역별 무역수지 현황(특별시, 광역시 포함)

(단위 : 천불)

	지 역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총교역액
1	충남 아산시	15,388,384 (11.0%)	785,715 (23.0%)	14,602,670	16,174,099 (11.5%)
2	경북 구미시	5,901,732 (32.7%)	679,257 (19.8%)	5,222,475	6,580,989 (31.2%)
3	충북 청주시	5,692,347 (28.4%)	884,630 (28.0%)	4,807,717	6,576,977 (28.3%)
4	경남 거제시	4,119,509 (8.7%)	603,009 (-7.2%)	3,516,500	4,722,518 (6.3%)
5	경기 용인시	4,590,801 (17.6%)	1,787,569 (3.8%)	2,803,232	6,378,370 (13.3%)
6	경남 창원시	4,172,670 (11.4%)	1,417,079 (5.2%)	2,755,590	5,589,749 (9.8%)
7	광주광역시	3,917,075 (17.6%)	1,876,585 (32.3%)	2,040,490	5,793,660 (22.0%)
8	전남 여수시	5,977,867 (7.3%)	4,741,345 (-13.9%)	1,236,522	10,719,212 (-3.2%)
9	전남 영암군	948,201 (53.2%)	100,295 (-23.0%)	847,906	1,048,496 (40.0%)
10	충남 천안시	2,070,835 (15.4%)	1,225,709 (10.8%)	845,126	3,296,544 (13.6%)
11	대구광역시	1,857,315 (5.7%)	1,137,158 (16.2%)	720,159	2994473 (9.4%)
12	경기 광명시	1,027,412 (90.6%)	417,060 (32.4%)	610,352	1444472 (69.1%)
13	경기 파주시	1,383,634 (2.4%)	789,534 (3.4%)	594,100	2173168 (2.7%)
14	경기 화성시	4,763,084 (31.2%)	4,200,087 (50.2%)	562,997	8963171 (39.5%)
15	경기 김포시	1,021,703 (-25.5%)	526,145 (23.8%)	495,558	1547848 (-13.8%)
16	경기 이천시	4,254,386 (21.9%)	3,765,864 (36.7%)	488,522	8020250 (28.5%)
17	경기 안산시	1,889,330 (8.0%)	1,420,936 (16.2%)	468,393	3310266 (11.4%)
18	대전광역시	1,279,564 (3.2%)	812,494 (-8.5%)	467,070	2092058 (-1.6%)
19	경남 양산시	826,554 (13.3%)	412,892 (12.7%)	413,663	1239446 (13.1%)
20	경기 오산시	422,815 (27.1%)	189,053 (37.2%)	233,762	611868 (30.0%)
	총계	146,486,619 (12.5%)	136,101,298 (12.0%)	10,385,321	282,587,917 (12.3%)

※ ()는 2020년 1분기 대비 증감율임.
<자료 : KITA.net>